

# 보도자료

이 자료는 2월 22일 13:30부터 취급하여  
주십시오.

## 제 목 : 경제전망(2024.2월)

- 2024년 그간의 글로벌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한 해
  - 중동불안,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높아
- 국내경제는 내수 부진하나 수출 개선 힘입어 2.1% 전망 유지
  - IT경기·美성장세 예상 상회하며 국내 민간소비, 건설투자 부진 완충
- 물가는 2.6% 유지, 높은 생활물가는 우려
  - 국제유가 불안 등으로 라스트마일 순탄하지 않을 가능성

(붙임) 「국내외 여건 및 전망(2024.2월)」. 끝.

[문의처 : 조사국·경제모형실]

경제성장 : 조사총괄팀 02-759-4181, 4202

지출부문 : 경기동향팀 02-759-4234

물 가 : 물가동향팀 02-759-4231

부 동 산 : 물가연구팀 02-759-4363

세계경제 : 국제종합팀 02-759-5280

경상수지 : 국제무역팀 02-759-4421

고용·임금 : 고용분석팀 02-759-4232

재정·금융 : 재정산업팀 02-759-4243

시나리오 : 경제모형실 02-759-4200

[공보관] 02-759-4016, 4135

“한국은행 보도자료는 인터넷 (<http://www.bok.or.kr>)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은행**  
BANK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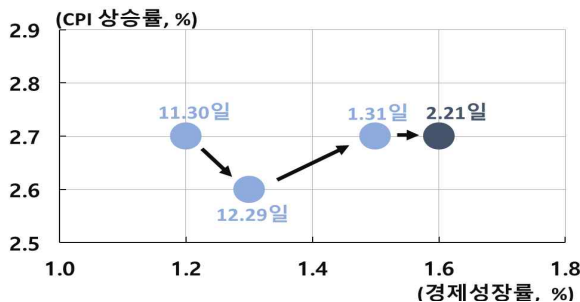
## 경제전망 요약

- ▶ 2024년 세계경제는 지정학적으로는 높은 불확실성이 계속되겠으나 그간의 고물가-고금리 국면이 점차 완화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 ▶ 국내경제는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모멘텀이 약화된 반면 수출이 예상보다 양호함에 따라 완만한 개선흐름을 이어갈 전망이다.
- ▶ 물가상승률은 더딘 소비 회복세 등으로 근원물가를 중심으로 완만한 둔화 추세를 이어가겠으나,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둔화 흐름이 당분간 주춤할 것으로 예상된다.

① 지난 전망후 대외여건은 개선되었으나 내수흐름은 당초 예상보다 약한 모습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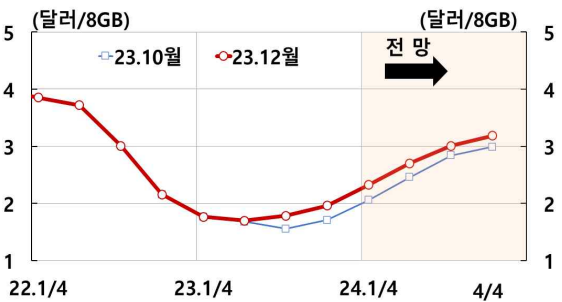
- **대외여건**을 보면 미국경제가 예상을 뛰어넘는 성장세를 이어갔으며 향후에도 연착륙 가능성이 높아졌다. IT 경기 회복세는 당초 예상에 부합하거나 더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글로벌 금융여건은 美연준의 긴축완화 기대가 커졌다가 시장예상을 상회하는 물가 등으로 11월 전망 시점 수준으로 대부분 되돌려지고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냈다. 국제유가는 非OPEC+ 증산 등으로 하방압력이 커졌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 **대내적**으로는 민간소비의 회복 모멘텀이 약화되었다. 건설투자는 최근 부진이 두드러진 모습이며, 부동산 PF 관련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다.

<2024년중 美 성장 및 물가 전망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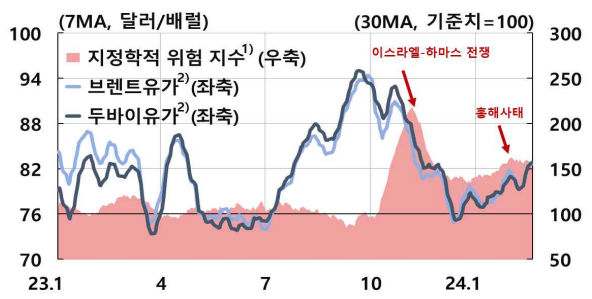
주: 1) 시장예상치 중간값 기준 자료: Bloomberg

<글로벌 D램 평균판매단가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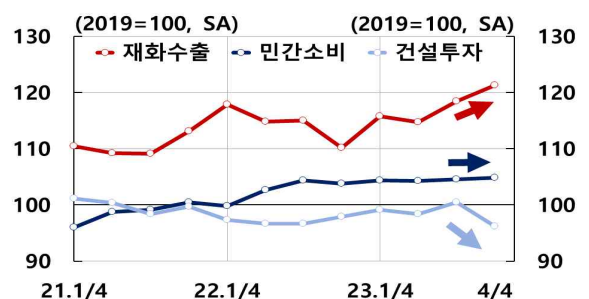
자료: Gartner

<국제유가와 지정학적 리스크>



주: 1) 30일 이동평균 기준 2) 7일 이동평균 기준  
자료: Bloomberg, Caldara et al. (2024)

<GDP 민간소비, 건설투자 및 재화수출>



자료: 한국은행

② 금년 세계경제는 글로벌 통화긴축 영향으로 당분간 장기 평균(10~19년 3.7%)에 못 미치는 성장흐름을 보이다가 하반기 이후 주요국 디스인플레이션 진전, 금융여건 완화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이다. 그러나 중동정세 불안, 美 대선 등 지정학적 리스크는 큰 상황이다.

- 미국은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양호한 수준의 성장흐름을 지속할 전망이다. 다만 대선 결과에 따른 대내외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 유로지역은 부진을 지속하다가 하반기 이후 완만하게 개선될 전망이다. 중국은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부진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경기부양책 등으로 4%대 중반의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교역은 당초 예상보다 개선흐름이 지연되고 있으나 향후 글로벌 투자개선 등에 힘입어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점차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 국제유가는 중동정세 불안으로 변동성이 높지만 非OPEC+ 증산, 수요둔화 우려 등이 하방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초 예상보다 소폭 낮은 80달러대 초중반 수준을 나타낼 전망이다.

③ 24년중 국내성장률은 2.1%로 지난 11월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되나 수출-내수간 차별화는 당초 예상보다 심화될 전망이다.

- 성장흐름을 보면, 23.4/4분기중 내수는 성장기여도\*가 마이너스인 반면 수출은 예상을 상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당초 전망경로에 부합하는 성장세를 보였으며 향후에도 내수는 회복이 더디겠지만 수출·설비투자가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는 데 힘입어 전반적인 경기는 완만한 개선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 23.4/4분기 성장기여도(전기비, %p): 내수 △0.2 [소비 +0.2, 건설투자 △0.7], 재화수출 +1.0

- 성장 전망경로 상에는 주요국 성장 및 물가흐름, 통화긴축 완화 시기, 국내 부동산 PF 구조조정 과급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세계경제 성장률 전제<sup>1)</sup>>

(%)	2022	2023	2024 <sup>e)</sup>	2025 <sup>e)</sup>
세계경제	3.4	3.1	3.0	3.1
		[2.9]	[2.8]	[3.0]
• 미국	1.9	2.5	2.0	1.7
		[2.4]	[1.3]	[1.8]
• 유로지역	3.4	0.5	0.7	1.7
		[0.4]	[0.9]	[1.6]
• 중국	3.0	5.2	4.6	4.5
		[5.2]	[4.6]	[4.5]
세계교역	5.0	0.4	3.2	3.6
		[0.8]	[3.4]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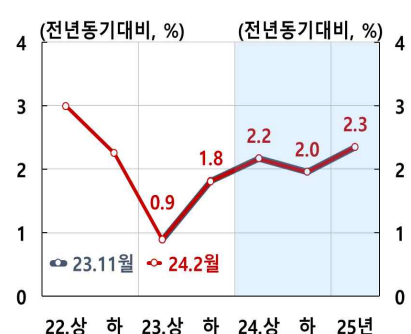
주: 1) [ ]내는 23.11월 전망  
자료: 각국 통계청, 한국은행

<국내 성장률 전망<sup>1)</sup>>

(%)	2022	2023	2024 <sup>e)</sup>	2025 <sup>e)</sup>
GDP	2.6	1.4	2.1	2.3
		[1.4]	[2.1]	[2.3]
• 민간소비	4.1	1.8	1.6	2.3
		[1.9]	[1.9]	[2.2]
• 재화수출	3.6	2.9	4.5	3.6
		[2.3]	[3.3]	[3.3]
• 설비투자	-0.9	0.5	4.2	3.7
		[-0.4]	[4.1]	[3.7]

주: 1) [ ]내는 23.11월 전망  
자료: 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경로<sup>1)</sup>>



주: 1) 음영은 전망치  
자료: 한국은행

④ 금년중 근원물가 상승률은 미약한 내수압력 등으로 지난 전망 수준을 소폭 하회 (-0.1%p)하는 2.2%로 예상되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유가 불확실성 증대, 환율상승 등으로 지난 전망 수준에 부합하는 2.6%를 나타낼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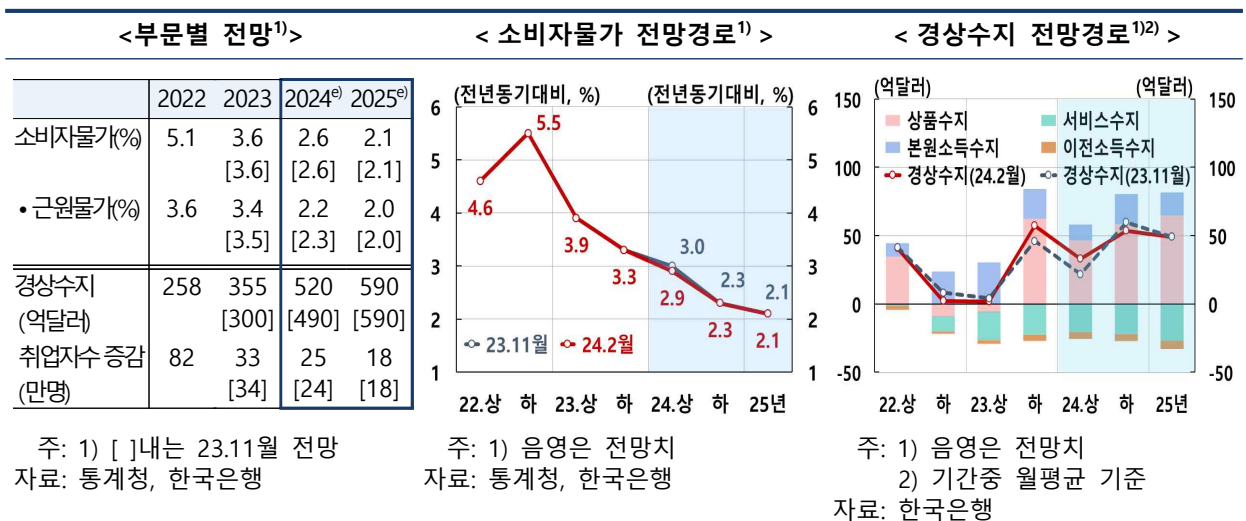
- 최근 유가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농산물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물가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 물가 전망경로 상에는 지정학적 리스크, 국내외 경기흐름, 누적된 비용압력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⑤ 금년중 경상수지는 520억달러로 당초 전망(490억달러)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상품수지는 반도체 경기회복 지속, 미국의 양호한 성장, 국내수요 둔화 등으로 흑자폭이 당초 예상보다 확대될 전망이다.
- 서비스수지는 예상보다 저조한 외국인 관광객 입국 등으로 적자폭이 확대될 전망이다.

⑥ 금년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25만명으로 당초 예상(24만명)에 대체로 부합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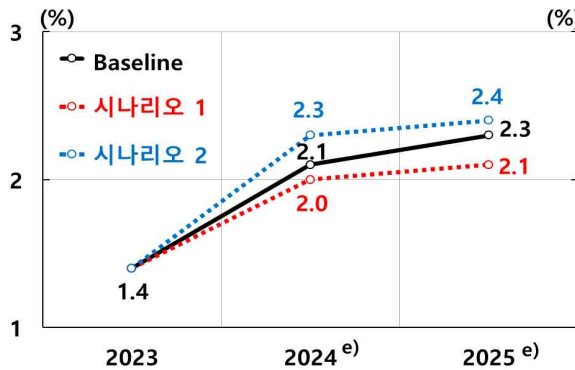
- 취업자수는 제조업 고용부진이 완화되고 여성·고령층의 노동공급이 지속되겠으나 내수회복 모멘텀 약화 등으로 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지난해(+33만명)보다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실업률은 2.9%로 전년(2.7%) 대비 소폭 상승할 전망이다.



⑦ 향후 전망경로 상의 불확실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지정학적 갈등 및 글로벌 IT 경기와 관련한 2가지 대안적 시나리오<sup>alternative scenarios</sup>를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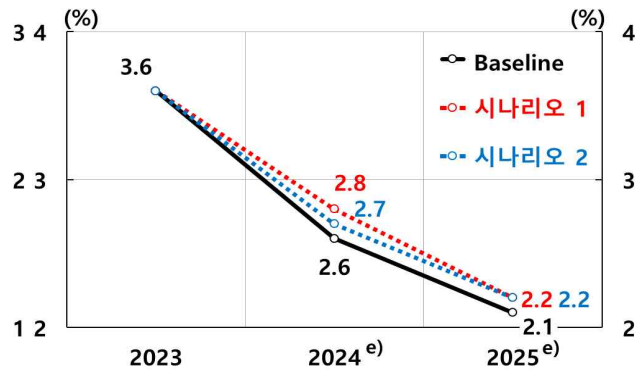
- **시나리오 1** 「중동지역 등 글로벌 지정학적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 공급망 교란 및 원자재가격 상승에 따라 금년 성장률이 2.0%로 낮아지는 반면 물가상승률은 기본전망(2.6%)을 상회(2.8%)할 것으로 예상된다.
- **시나리오 2** 「AI 투자 확대 등 글로벌 IT 경기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 수출과 투자 회복흐름이 강화되면서 금년 성장률은 2%대 초중반(2.3%)으로, 물가상승률은 2%대 중후반(2.7%)으로 소폭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된다.

< 시나리오별 GDP성장률 >



자료: 한국은행

< 시나리오별 물가상승률 >



자료: 통계청, 한국은행

◆ 종합하면, 국내경제는 내수회복이 더딘 상황에서도 IT 경기 회복 등에 힘입어 수출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개선되겠으며

물가상승률은 추세적으로는 둔화되겠으나 단기적으로 둔화 흐름이 주춤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당분간 물가리스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경제전망 요약표(2024.2월)

	2022		2023		2024 <sup>e)</sup>		2025 <sup>e)</sup>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상반	하반	연간	연간
<b>&lt;전망의 주요 전제&gt;</b>								
세계경제 성장률(%) <sup>1)</sup>	<b>3.4</b>	3.0	3.1	<b>3.1</b>	2.6	3.3	<b>3.0</b>	<b>3.1</b>
• 미국	<b>1.9</b>	2.0	3.0	<b>2.5</b>	2.8	1.3	<b>2.0</b>	<b>1.7</b>
• 유로지역	<b>3.4</b>	0.9	0.0	<b>0.5</b>	0.3	1.1	<b>0.7</b>	<b>1.7</b>
• 중국	<b>3.0</b>	5.5	5.1	<b>5.2</b>	4.5	4.6	<b>4.6</b>	<b>4.5</b>
• 일본	<b>1.0</b>	2.4	1.3	<b>1.9</b>	0.2	1.5	<b>0.9</b>	<b>0.9</b>
세계교역 신장률(%) <sup>1)</sup>	<b>5.0</b>	0.4	0.3	<b>0.4</b>	2.3	4.1	<b>3.2</b>	<b>3.6</b>
브렌트유가(달러/배럴) <sup>2)</sup>	<b>99</b>	80	85	<b>82</b>	82	83	<b>83</b>	<b>81</b>
<b>&lt;국내경제 전망&gt;</b>								
GDP 성장률(%) <sup>1)</sup>	<b>2.6</b>	0.9	1.8	<b>1.4</b>	2.2	2.0	<b>2.1</b>	<b>2.3</b>
• 민간소비	<b>4.1</b>	3.1	0.6	<b>1.8</b>	1.1	2.0	<b>1.6</b>	<b>2.3</b>
• 설비투자	<b>-0.9</b>	5.3	-4.0	<b>0.5</b>	2.6	5.7	<b>4.2</b>	<b>3.7</b>
• 지식재산생산물투자	<b>5.0</b>	2.9	0.3	<b>1.6</b>	1.5	2.8	<b>2.2</b>	<b>3.3</b>
• 건설투자	<b>-2.8</b>	1.8	1.0	<b>1.4</b>	-2.4	-2.9	<b>-2.6</b>	<b>-1.0</b>
• 재화수출	<b>3.6</b>	-0.9	6.6	<b>2.9</b>	6.0	3.2	<b>4.5</b>	<b>3.6</b>
• 재화수입	<b>4.3</b>	1.9	-3.0	<b>-0.6</b>	0.1	5.4	<b>2.7</b>	<b>3.1</b>
소비자물가 상승률(%) <sup>1)</sup>	<b>5.1</b>	3.9	3.3	<b>3.6</b>	2.9	2.3	<b>2.6</b>	<b>2.1</b>
• 근원물가 <sup>3)</sup>	<b>3.6</b>	3.8	3.0	<b>3.4</b>	2.4	2.0	<b>2.2</b>	<b>2.0</b>
경상수지(억달러)	<b>258</b>	11	343	<b>355</b>	198	322	<b>520</b>	<b>590</b>
• 상품수지	<b>156</b>	-34	375	<b>341</b>	280	352	<b>632</b>	<b>776</b>
• 서비스수지	<b>-73</b>	-123	-134	<b>-257</b>	-122	-129	<b>-251</b>	<b>-316</b>
• 본원·이전소득수지	<b>175</b>	168	102	<b>271</b>	40	99	<b>139</b>	<b>130</b>
취업자수 증감(만명) <sup>1)</sup>	<b>82</b>	37	28	<b>33</b>	27	23	<b>25</b>	<b>18</b>
실업률(%)	<b>2.9</b>	3.0	2.4	<b>2.7</b>	3.1	2.7	<b>2.9</b>	<b>2.9</b>
고용률(% <sup>4)</sup>	<b>62.1</b>	62.2	63.0	<b>62.6</b>	62.5	63.1	<b>62.8</b>	<b>63.0</b>

주: 1) 전년동기대비 기준      2) 근원물 기간 평균 기준      3) 식료품·에너지 제외 기준  
 4) 15세 이상 기준  
 자료: 각국 통계청, Bloomberg, 한국은행